

8년 만의 '겨울 축제'...최민정·김민선·차준환 등 금 도전



2017년 일본 삿포로를 끝으로 볼 수 없었던 아시아의 '겨울 스포츠 축제' 동계 아시안게임이 한 달 뒤 돌아온다.

다음달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는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린다.

'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8일간 열전을 펼친다.

스키 등 설상종목은 하얼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헤이룽장성 아부리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7년 제8회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에 찾아온다.

삿포로 이후 열려야 했던 2021년 대회가 개최지 선정 난항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취소되면서 다시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1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알마티에서 열린 제7회 대회 이후 6년 만인 2017년에 삿포로 대회가 열렸고, 이번엔 8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등 최근 주기가 들쭉날쭉하다.

이번 대회 이후엔 4년 뒤인 202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회 대회가 예정되었다.

중국은 1996년 하얼빈, 2007년 창춘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동계스포츠 국제 종합대회를 3년 만에 다시 연다.

29년 만에 하얼빈에서 열리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에는 6개 종목의 11개 세부 종목에 총 6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큰 갈래의 6개 종목은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다.

이 중 빙상은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키는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2월 7~14일 중국 하얼빈서 열전 역대 최다 34개국 1500여명 경쟁 한국, 선수 150명 포함 220명 참가 동계올림픽 앞두고 실력 체크 나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요

개최지: 중국 하얼빈 | 일정: 2025년 2월 7일~14일

종목: 6개 종목, 11개 세부 종목, 금메달 64개
빙상(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키(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프리스타일, 크로스컨트리),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마스콧트: 백두산 호랑이, 빈빈, 니니

경기장 위치: 중국 헤이룽장성 아부리 리조트

한국 선수단: 선수 150명 포함 220여명 규모

1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개폐식)
2 헤이룽장성 아부리 리조트
3 헤이룽장 동계스포츠 트레이닝 센터
4 하얼빈 빙판구 훈련 아레나
5 하얼빈체육대학교 아이스스케이팅장
6 하얼빈아이스하키스튜디오

주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민정(왼쪽부터), 김길리, 박지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혼성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스타일, 스노보드의 세부 종목으로 각각 나뉜다.

컬링의 믹스터블 경기와 프리스타일 스키의 싱크로나이즈드 에어리얼, 산악스키는 처음 도입된다.

공식 개막에 앞서 2월 5일부터 컬링, 아이스하키 경기 일정이 먼저 시작된다.

이번 대회엔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많은 34개국에서 온 선수 1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선수 150명을 포함해 220여명 규모의 선수단을 꾸릴 예정이다.

2017년 삿포로에서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해 일본(금27·은21·동26)에

이어서 종합 2위(금16·은18·동16)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 개최국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는 리허설 무대다.

전통의 '메달밭'인 쇼트트랙에 최민정·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박지원(서울시청) 등 간판급 선수들이 출격하고, 스피드스케이팅에도 '신 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을 필두로 김준호(강원도청), 차민규(동두천시청) 등 대표 주자들이 총출동한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차준환(고려대)과 스

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이재운(수리고)도 이미 세계 선수권대회 입상 경력을 지닌 금메달 후보들이다.

컬링 여자부와 믹스터블, 남자 아이스하키,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이승훈) 등도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된다.

이번 대회 마스코트는 백두산 호랑이(중국명 동북 호랑이·东北虎) '빈빈' (수컷)과 '니니' (암컷)다.

빈빈과 니니는 2023년 9월 하얼빈에서 호랑이 보호 목적으로 조성된 '동북호림원'에서 태어난 새끼 호랑이 2마리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빈빈은 겨울 스포츠웨어를 입고 아이스 댄스를 펼쳐 빙상 종목을 대표하며, 니니는 전통 중국 의상

차림으로 스노보드를 탄 모습으로 설상 종목을 상징한다.

'초월'이란 의미를 담은 엠블럼은 쇼트트랙 선수가 달리는 모습에 라일락꽃과 리본 이미지를 혼합해 제작됐다.

중국의 대표적인 '눈과 얼음의 도시'인 하얼빈엔 대회 기간에도 혹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참가자들은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하얼빈은 현재도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정도이며, 대회 기간 최저 기온도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다. 하루 중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그치고, 영하 10도 안팎인 날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새해 첫 프로입단' 순천 바둑중 임지호 "세계 무대에서 활약"

지역 15세 이하 입단대회 1위 올해 목표는 프로기전 본선 진출

새해 첫 프로입단의 주인공이 된 한국바둑중학교 임지호(3년)가 "실력있는 프로기사로 성장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지호는 6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0회 지역 15세 이하 입단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프로기사로 입단했다.

임지호는 이번 대회 최종국에서 바둑중학교 후배인 윤준우(2년)를 꺾고 우승했다.

단 1장의 한국기원 입단 티켓을 놓고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5세 이하 지역 연구생 28명이 참가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열전을 펼쳤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9회 입단대회에서 같은 반 이승석과 결장국까지 갔지만 아쉽게 패했던 임지호는 이후 머리 삭발까지 하며 프로입단의 의지를 다졌다.

임지호는 "그때 겨울에는 꼭 입단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머리를 밀었다. 감독님들도 놀라시고 다 신기하게 쳐다보더라. 저번에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입단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국 당시를 떠올리며 "이번엔 1위를 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다. 사범님께서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많이 자신감을 주셨다"고 전했다.

임지호는 지난 2023-2024년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해 2년 연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둑을 시작한 그는 대진용전조를 졸업하고 전남 순천의 한국바둑중에 진학해 바둑 입문 9년 만에 프로 입단에 성공했다.

임지호는 "유치원 방과 후 시간 때 처음으로 바둑을 뒀었다. 그때 바둑을 재미있게 두면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 바둑학원을 등록해 주셨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는 교과 수업하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쪽 바둑 공부를 한다. 뒀던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하려고 한다"고 전한 그는 "강점을 짚으려면 후반 마무리인 것 같다. 정교한 끝내기"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프로로서 첫 발을 댄 임지호는 더 큰 무대를 향해 성장하겠다는 다짐이다.

임지호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올해 목표는 프로기전 본선까지 가는 거다. 꿈의 대회인 중국바둑갑조리그에서도 꼭 활약



한국바둑중 임지호. <한국기원 제공>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를 지도한 한국바둑중 민상연 지도자는 임지호에 대해 "기풍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스타일이다. 실력을 발전시켜서 전체적인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차근차근 발전해 나간다면 훌륭한 프로 기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대한체육회장 선거 2차 후보자 정책토론회 무산

후보자 전원동의 불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기간 두 번째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7일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캠프에 따르면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2차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일부 후보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이기흥, 김용주, 유승민, 강태선, 오주

영, 강신욱 등 6명의 후보 캠프에 2차 토론회 개최 무산 내용을 통보했다.

체육회장 선거 규정상 2차 토론회는 후보자 전원이 개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4년 전 제41대 체육회장 선거 때도 일부 후보의 반대로 2차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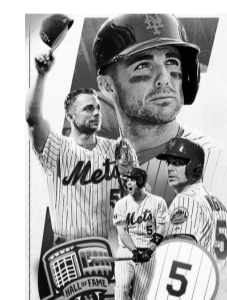
한편 차기 체육회장은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투표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연합뉴스

MLB 메츠 라이트 '5번' 영구 결번 지정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가 '윌클립턴'으로 은퇴한 강타자 데이비드 라이트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한다.

메츠는 7일(이하 한국시간) 라이트가 현역 시절 달았던 등번호 '5번'에 대한 영구 결번과 구단 명예의 전당 입회 행사를 오는 7월 20일 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메츠의 영구 결번 선수는 1965년 케이스팅겔(37번), 1973년 길 호지스(14번), 1988년 톰 시버(41번), 2016년 마이크 피아자(31번), 2021년 제리 쿠스먼(36번), 2022년 키스 에르난데스(17번)와 윌리 메이스(24번), 2024년 드와



이트 구든(16번)과 대릴 스트로베리(18번)에 이어 총 10명으로 늘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모두 영구 결번으로 지정한 재키 로빈슨(42번)을 포함하면 11명째다.

메츠 구단 역사상 가장 뛰어난 포지션 플레이어 로 평가받는 라이트는 15시즌 통산 타율 0.296, 242홈런, 970타점을 기록했으며 올스타에 7차례 뽑혔고 골드글러브는 2차례 받았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2025-01-15(수) 19:3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환희: 양홍길 개인전

일시: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